

職業能力開發研究
第9卷(2), 2006. 12, pp. 29~61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여성장애인의 직업 선택 및 유지 과정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곽지영** · 조정아***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장애인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파악해보고, 그 경험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는 데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취업을 시도한 경험이 있거나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 16명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trauss & Corbin(2001)이 제시한 질문하기와 지속적 비교방법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여성장애인의 직업 선택 및 유지 과정은 직업 인식기, 직업 탐색기, 직업 준비기, 직업 적응기의 4과정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경험은 단순히 성인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경험이 아닌 전 생애에 걸친 연속적인 과정으로서 “여성장애인의 직업적 사회화 과정에서의 배제 경험과 적응 경험”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제 경험으로 인해서 여성장애인들의 직업적 사회화 과정은 연속적이기보다는 분절적이며, 순환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여성장애인의 직업 상태는 성인지 직업 재활 훈련이나 서비스의 미비보다는 직업 인식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발견함으로써, 향후 여성장애인의 직업 선택 및 유지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이 직업적 사회화의 장(arena)인 가정, 학교, 사회에서 경험하는 배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의 함의를 갖는다.

- 주제어: 직업적 사회화, 직업 선택, 직업 유지, 배제 경험, 질적 연구

투고일: 2006년 10월 30일, 심사일: 11월 14일, 심사완료일: 11월 30일

* 이 연구는 한국 DPI 여성위원회의 “장애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자료를 재분석한 것이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한국DPI 여성위원회의 위원들과 면접에 응하여 주신 여성장애인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 (jy0913@hanmail.net)

***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시간강사 (sdiminerva@dreamwiz.com)

I. 서론

1998년 IMF 외환 위기를 경험한 우리나라의 직업 세계는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평생 직업의 개념이 붕괴되었고, 좋은 직업에 대한 평가 기준도 직업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와는 달라진 직업 환경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성인기 이후 직업은 소득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생존과 직접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인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의 보장 및 자아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취업 및 고용의 상태에 도달하고 유지하는 것은 성별, 장애여부와 정도, 유형 등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장애인에게는 사회통합과 경제적 자립의 수단이며,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과 정상화의 실현, 고용을 통한 평등의 추구, 그리고 생애에 걸친 노동력의 확보라는 고용이념을 달성한다”(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3)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직업이 없다는 것은 개인의 삶에 깊은 경제적·사회적·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helley & Glenys(2003)에 의하면 장애로 인해 직업이 없거나 직업을 상실한 경우에는 비장애 실업자보다 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은 직업을 구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종종 그들만이 겪는 독특한 장벽에 직면한다는 연구들(Anderson, 1999; Cheryl, 1999; Westmorland et al., 2002)도 있다. 더욱이 Fulton & Sabornie(1994)는 남성장애인과 비교할 때 여성장애인은 취업률이 더 낮고,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드물고, 더 적은 돈을 벌며, 직업적 안전성이 더욱 약하며, 숙련직종(skilled job) 종사자가 더 적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렇듯 기존의 외국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장애인의 직업 선택 및 직업 유지의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과 별로 다르지 않다. 2005년 전국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43.5%로, 여성장애인 20.2%의 2배 수준이며, 미취업 원인을 고려한 실업률의 경우 남자 장애인은 21.1%, 여자는 28.8%로 여성장애인

의 실업률이 남자보다 7.7% 포인트 높게 나타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여성장애인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무능하고, 비가시적이며, 의존적이고, 무성적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성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직업은 생계유지와 자아 실현의 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즉, 여성장애인에게 직업은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인간에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받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직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들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통념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와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경험이 여성장애인이 직업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를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해서 파악하였다. 기존의 장애인의 취업 또는 실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실태 및 고용시장 내 차별을 드러내주고 있거나, 취업이나 실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용시장 내에서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연구는 현재의 여성장애인들의 직업 선택 및 유지 경험을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취업을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고용 시장 진입과 더불어 자영업을 가지는 것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삶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깊이 있는 경험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여성장애인으로 일반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직업 선택 및 유지와 관련된 여성장애인의 경험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직업 선택 및 유지 과정에 필요한 실천적인 차원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선행 연구 고찰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취업 실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의 낮은 취업률과 특히 여성장애인들의 더 낮은 취업률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한 때에는 취업 현황

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취업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이나 개인의 인적 자본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도 의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은 일차적으로 제 몫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선우, 199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7; 유동철, 2000; 서울시실업대책위원회, 2000; 유동철, 2002; 강동욱, 2003)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5년과 2000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재분석한 것이다. 1995년 전국 활동제약자 실태조사와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 실태에 대한 공식적인 전국 단위 조사로서 장애인 복지 분야의 기본 자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에 대한 2차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의 용이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실태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재분석한 연구들은 실태 조사 내용 변수 안에서만 요인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장애인 취업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존의 장애인 취업 및 실업 관련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영역은 장애인의 고용실태와 취업 욕구 및 취업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들로서 장애인의 취업 및 실업 관련 선행 연구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수행된 영역이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이선우(1997)는 장애인의 경우 교육과 직업서비스와 같은 인적 자본이 많을수록 취업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유동철(2000)은 직업훈련기간은 장애인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임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직업훈련 제공 주체 중에서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의 훈련이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중공업이나 첨단직종의 직업훈련이 취업과 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 결과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취업의 요인들이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적자본 요인, 취업욕구 및 경험, 직업훈련 여부 등 개인적 특성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7)은 여성장애인의 낮은 취업을 실태를 제시하면서, 그 원인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한 동기 및 자원이 부족한 데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2003)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장애인이 취업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불평등 경험 실태를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두 번째 영역인 고용시장내 차별 실태 및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들은 주로 채용단계에서의 차별과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겪는 임금 차별, 직무 차별, 교육 및 훈련 기회 차별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들은 취업 실태에 비해서는 그다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지 않다. 나운환 외(2003; 2004)는 직접 조사를 통해 고용차별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강동욱(2003)은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고용차별 중에서 특히 임금차별의 수준과 요인

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유동철(2003)은 채용 시에 연령제한 적용으로 인한 장애인 간접 차별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 장애인이 아닌 여성장애인의 고용시장내 차별에 대한 연구로는 유동철(2000)의 연구가 있다. 유동철(2000)은 여성지체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고용 및 임금 차별을 경험할 때 성차별 효과와 장애 차별 효과 중에서 장애 차별 효과가 더 크다고 밝히고 있다.

나운환 외(2003)는 8개 유형의 장애인 9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한 결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실태를 모집 및 채용단계, 퇴직 및 해고 단계, 직무 배치 단계, 임금 및 복지 혜택, 능력 개발, 구제 실태의 6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나운환 외(2004)는 기존 문헌들을 토대로 노동시장 진입 전 차별실태를 사회구조적 차원, 물리적 환경의 차원, 교육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2003년에 사용된 원자료 중에서 청각·언어 장애인들 사례만을 재분석하여 6가지 차원에서의 차별 실태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영역인 장애인의 실업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들 역시 기존의 실태 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한 것이다. 유동철(2002)은 장애인의 실업률이 높은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의 부재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나운환·정명현(2004)은 노동부 고용정보망 구직등록 장애인 자료를 재분석하여 실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직업적 특성과 실업대책 특성에서 파악하였다.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2000)의 연구는 양적 연구(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재분석)와 질적 연구(여성장애인 15명과 전문가 5명 심층 면접한 자료를 질적 분석)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그리하여 여성장애인 실업의 원인을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사회 환경적 인프라의 부재로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이 실업의 원인을 인구사회학적 측면과 직업 훈련 측면에서 접근한 것과는 다른 경로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실업과 관련된 연구는 장애인 대상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그나마 있는 연구들도 주로 낮은 취업 실태를 보여주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취업 또는 실업, 차별의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이 직업을 선택하고 찾고 유지하는 경험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즉, 여성장애인은 취업 당시에만 차별을 경험하거나, 직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차별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여성장애인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취업률 자체가 낮다는 사실보다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배경과 직업을 갖더라도 중도에 좌절하거나 포기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또 이직과 실직의 연장선상에서 차별로만 설명되지 않는 복합적인 경험 속에서 결국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직업과 관련된 연구도 단편적 분석에서 벗어나 질적인 접근을 통해서 여성장애인의 직업 선택과 유지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표 1> 장애인/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실업 관련 선행연구

구분	장애인 대상 연구			여성장애인 대상 연구		
	취업 관련 실태 /취업 요인	차별 실태 및 요인	실업 요인	취업 관련 실태 /취업 요인	차별 실태 및 요인	실업 요인
연구 및 원 자료	이선우(1997)	나운환 외 (2003)*	유동철(2002)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1997)	유동철(2000)	서울시실업 대책위원회 (2000)
	1995 실태조사 자료 2차 분석		2000 실태조사 자료 2차 분석	1995 실태조사 자료 2차 분석	1995 실태조사 자료 2차 분석	1995 실태조사 자료 2차 분석 심층 인터뷰 분석
	유동철(2000a)	유동철 (2003)*	나운환·정명현(2004)	김기태 외 (1999)*		
	1995 실태조사 자료 2차 분석		노동부 고용정보망 구직등록 장애인 자료 2차 분석			
	이성규(2001)*	나운환 외 (2004)*		한국여성장애인 연합(2003)*		
	이계준(2001)	강동욱(2003)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 정신장애인 자료 2차 분석	2000 실태조사 자료 2차 분석 제3차 한국노동패널 자료 2차 분석				
박석돈·김신주 (2003)*						

* 1차 자료(original data) 분석 연구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방법

연구 참여자의 선정 방법은 비확률표집방법 중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의도적 표집은 질적 연구의 대표적 표집방법으로서 특정 현상에 대한 서술과 해석, 통찰과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질적 연구에 적합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유태균, 2001). 의도적 표집방법은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여성장애인의 취업 관련 경험에 대해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의도적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취업을 시도한 경험이 있거나 취업을 경험한 여성장애인 중 각 지역 여성장애인 단체의 추천을 받아 참가자들을 선별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령대와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추천을 받았고, 취업 경험도 고용시장과 비고용시장의 경험을 제한하지 않고 추천을 받아 연구를 실시하였다. 단, 장애의 특성상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제한이 되는 정신지체 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연구 특성상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장애 유형별 경험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2. 조사방법: 심층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을 활용한 질적 연구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 개별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자들은 문헌 연구를 통해 반구조화된 질문 항목을 구성하여, 참여자 자신의 구직 및 취업 유지 관련 경험에 관한 일대일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개별 인터뷰 실시 이후 연구자들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포커스 그룹에 필요한 핵심 질문을 개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¹⁾를 통해 구직

및 취업 유지 경험에서 드러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보다 풍부한 자료를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개별 인터뷰 참여자들과 장애인복지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 1회씩 진행하였다.

3. 자료분석과 신뢰성

자료는 현장에서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기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그리고 녹음한 자료는 연구자들이 직접 필사하여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trauss & Corbin(2001)이 제시한 질문하기²⁾와 지속적 비교방법³⁾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질문하기와 지속적 비교방법은 분석 도구 중의 하나로 한 범주와 연관된 속성과 차원에 민감해지도록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사례에 대해 이론적으로 질문을 하고 범주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비교하여 생각함으로써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 박사 2인과 함께 script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인터뷰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고, 줄단위 분석과 함께 각 진술에 대한 요약을 하였다. 그 후 유사한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개념들을 범주로 묶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하위 범주들은 과정으로 다시 구분되었다. 또한 분석이 종료된 시점에서 여성장애인 3인과 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

-
- 1)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정보제공자의 통찰력에 근거한 가설을 일반화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나 통찰력을 얻기 위해 집단의 상호작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Morgan, 1988)이다.
 - 2) 자료분석에서 질문하기는 대개 연관된 지식에 의해 촉발되는데, 자료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는 민감성에 의해 촉진된다. 자료에서 중요한 자료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이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들이 행동하는가?’, ‘다양한 상황에서 그들의 어떤 부분이 동일하며 어떤 부분이 다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분석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2001).
 - 3) 지속적 비교방법은 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건 대 사건 비교와 은유를 통한 이론적 비교를 통해 사고를 촉진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2001).

IV. 연구 결과

1. 연구참여자의 기술

연구 참여자는 총 16명이었다.⁴⁾ 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40대가 7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0대 5명(31.3%), 50대 3명(18.8%), 20대 1명(6.3%)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7명(43.8%)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기혼 5명(31.3%), 별거 2명(12.5%), 이혼 1명(6.3%), 사별 1명(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교육 여부를 살펴본 결과, 참가자 중 15명(93.8%)이 정규교육을 이수하였고, 1명(6.3%)만이 정규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후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 6명(37.5%), 대졸이 5명(31.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졸 4명(25.0%), 대학원졸 1명(6.3%)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 대상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참여자 중 5명(31.3%)이 수급 대상자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11명(68.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시각장애 3명(18.8%), 뇌병변 장애가 2명(12.5%)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보조구를 사용하는 참여자는 4명(25.0%)으로 주로 목발, 전동휠체어, 시력보정용 안경 등을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의 현재 취업상태는 취업이 11명(68.8%), 비취업이 5명(31.3%)으로 나타났고, 자격증 소유 여부도 7명(43.8%)이 사회복지사, 보육사, 미용사, 안마사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여성장애인의 직업 선택 및 유지 과정

여성장애인이 직업 선택 및 유지 과정 상의 경험과 관련한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51개의 개념, 25개의 범주와 4개의 과정이 도출되었다. 여성장애인의 직업 선택

4) 16명 외에도 장애여성단체 활동가 6명이 참여하여 개인 경험과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의견을 주었다.

및 유지 과정은 직업 인식기, 직업 탐색기, 직업 준비기, 직업 적응기의 4과정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겪는 경험들은 자연스러운 단계별 과업을 수행하는 적응 경험과,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개인적·환경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배제 경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단, 직업 적응기의 경우는 직업을 가진 이후의 기간이기 때문에 직업 유지에 도움이 되는 요소와 어려움이 되는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자료 분석 결과 발견된 개념들을 범주화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개념의 범주화

개 념	범 주	과 정	
직업을 가질 것으로 기대받지 못함 특정 직업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경험	직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배제 경험	직업 인식 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함 주변인으로서 학교생활을 함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		
경제적 이유로 직업이 필요함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싶음	직업의 필요성 인식	적응 경험	
하고 싶은 일에 선뜻 도전하지 못함 장애로 인해 제한적 진로 모색	희망 직종에 도전할 용기가 없었음	배제 경험	직업 탐색 기
적절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 취업알선기관의 역할에 대해 부정확하게 인식	직업재활서비스에서 소외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적정 직업 정보 획득	제한된 정보 접근 경로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영역을 발견 구체적 직업 목표 설정	직업 정체성의 형성	적응 경험	
시켜보지도 않고 일이 힘들 것이라고 거절 장애인 구인 조건이 남자만을 의미 장애 때문에 일자리가 거부됨 근로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음	채용 조건 상의 차별	배제 경험	직업 준비 기
편의시설이 없는 사업체에 대한 구직 포기 원거리 통근을 위한 자가차량 미비로 취업 거부	물리적 접근이 보장되지 못함		
직종에 관한 결정적 정보의 부족으로 면접에서 탈락 창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창업 기회를 놓침	구직과 관련된 핵심 정보 부족		
학력과 직업 능력에 맞지 않는 업무 제의 장애를 이유로 면접시 보조직을 의뢰받음	보조적 직업 역할 강요		

(표 계속)

개 념	범 주	과 정	
전동휠체어로 인해 사회로 나오기 시작 전동휠체어를 무상으로 제공받음	물리적 접근성 확보	적용 경험	직업 준 비 기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희망직종을 소개받아 취업	지원체계의 적절한 활용으로 취업		
여러번 도전 끝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됨 낮에 일해서 번 돈으로 밤에 미용기술 배움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 달성위해 노력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음 동일 노동 비동일 임금 취업후 직원 교육에서 배제됨 장애로 인해 업무배치상 제한이 됨	불공평한 종사상 지위	취업유지의 방해요소	직업 적 응 기
새로운 분야로 늦은 나이에 전직해서 동료관계가 어려움 다른 동료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동료들이 나의 당당한 모습에 거부감을 느낌	동료관계의 어려움		
적은 월급보다 더 많이 드는 교통비 낮은 수입으로 생계가 불안함	낮은 수입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	물리적 접근성 미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	직업에 대한 만족감	취업유지의 강화요소	
아는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음 친구와 동일한 직장에 취업해서 도움을 받음	대인관계 상 스트레스 적음		
과다한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가 높아 힘들 취업이 안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자영업 선택함	노동 집약적인 작업환경	자영업유지 의 방해요소	
창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폐업을 하게됨	창업관련 정보 수집 미비		
높은 수입으로 다른 직장에 취업할 생각은 하지 않음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화함	자영업에 대한 만족감	자영업유지 의 강화요소	
자녀양육에 대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음 창업지원센터의 상담을 받아 사업장 이전 및 개조 출퇴근을 위해 자전거와 오토바이 배움	적절한 지원체계 활용		
장애상의 불편을 해소하려 노력했으나 한계를 느낌 장애상태가 악화되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음	건강악화로 취업 유지 불가능	직업생활 포기	

가. 직업 인식기

직업 인식기는 어린 시절부터 장래의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다양한 직업에 대해 탐색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막연하나마 자신의 장래 직업을 고려해 보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장애인 대부분은 이 시기에 직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하거나, 비장애인이나 남성장애인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직업 인식기에 이 같은 배제 경험을 한 여성장애인은 적절한 진로 탐색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 직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적절한 진로 탐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배제 경험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장애로 인해 독립적인 이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 가정에서부터 암묵적으로 가정 속에서 직업을 가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취직하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참여자들은 일반적인 취업은 어렵다고 생각한 부모에 의해서 기술을 배우거나, 대학 입학 시 전공 선택에서 특정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은 '직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범주화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장애로 인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경험을 드러내기도 했고, 정규 교육에 참여했지만 전학 과정과 교육 내용에서 비장애인과 다른 차별적 경험을 드러내서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주변인으로서 학교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은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범주화하였다.

직업 인식기에 배제를 경험하여 이 시기에서 성장이 단절된 여성장애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무력적인 태도를 내면화하게 되면서 스스로 직업 생활을 포기하고 의존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므로, 직업 인식기에서 성장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중학교 졸업 이후 아예 취업 못한다고 생각하셔서 송아지 팔아서 미싱을 사주셨어요. 그 때는 미싱 없이 기술 배우려 하면 1년간 잡일 다 처리하고 배워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싱을 가지고 기술을 배워서 활용했죠. (특정 직업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경험, P1)

마흔일곱 살에 세상에 나왔어요. 잠깐씩 밖에 나왔을 땐 남에게 의존했죠. 야학을 마흔여덟 살에 졸업하고, 그 나이에 학교 다니면 학교 졸업할 수 있을까 생각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하라고 했지만, 저는 초등학교도 못다녔는데 학교 다니고픈 것이 소원이었구요. 가정환경조사에 무학이라 쓴 것이 맘이 너무 아팠어요. 공부하면서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것도 깨달았구요. 세상에 나와 보니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함, P2)

2) 적응 경험

참여자들은 가정 환경의 변화로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거나, 경제력이 없어서 가정 속에서 당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직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은 '직업의 필요성 인식'으로 범주화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비장애인이 일반적으로 경제적 필요와 자아 실현을 위해 직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장애인에게 적절한 기회와 자극이 주어진다면 수동적이고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자이고 장애인이라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한 적이 많아서 더욱 경제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여성도 자기 직업과 능력이 있어야 가정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싶음, P2)

나. 직업 탐색기

진로 성숙에 대해, 남궁정(2004)은 자아에 대한 이해,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이며 개인이 같은 연령대나 발달 단계에 있는 집단 내에서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 따라 차지하게 되는 상대적 위치를 진로 성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업 탐색기는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적성과 흥미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하며, 직업을 가지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참여자들은 희망 직종에 도전할 용기가 없고 직업재활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배제의 경험을 통해 진로 성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참여자는 자기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면서 적절한 직업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배제 경험

참여자들은 장애를 인식하면서 자기 스스로 가능한 직업을 제한하고 하고 싶은 일에 선뜻 도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저시력 참여자의 경우는 안마 외의 다른 직종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희박했다는 경험을 드러냈다. 이러한 경험은 '희망 직종에 도전할 용기가 없었음'으로 추상화되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취업알선 기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학력, 장애유형 등과 관련 없는 직업훈련, 직능평가,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일부 참여자들은 취업알선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몰랐거나 정확한 서비스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은 '직업재활서비스에서 소외'로 추상화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직업정보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 개인적인 정보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에 대한 정보조차 개인적인 정보망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났는데 이것은 '제한된 정보 접근 경로'로 범주화되었다.

직업 탐색기에는 다양한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모델을 이웃 사람들이나 대중 매체에서 경험하는 것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자신의 경험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적절한 역할 모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희망하는 직종에 도전할 용기를 내지 못하며, 더욱이 이러한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업재활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정보 접근 경로가 제한됨으로 진로 성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직업 탐색기에서 적절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절된 경우는 적성 및 흥미와 상관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 진로 선택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스스로 내 장애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기술적으로 밖에 나가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설학원에서 미싱자수를 배워 일을 시작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양말 봉재를 하기도 했어요. 스스로 지나치게 장애를 인식하여 자신에게 맞지도 않은 육체노동에 시간을 허비한 거죠. 사무직은 안 될 것이라 여기고 알아보려고 시도하지도 않아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장애로 인해 제한적 진로 모색, P3)

저는 대학의 전공 분야를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결국 단순 노동직을 소개해 주더라구요. (적절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 P4)

장애인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고 가능한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적정 직업 정보 획득, P2)

2) 적응 경험

참여자들은 사회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과 사회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자신의 부족한 사회 조건을 채우기 위해 아학을 다니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자기에게 맞는 직업영역을 발견하거나 구체적인 직업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은 '직업 정체성의 형성'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여성장애인들에게 좀더 다양한 사회 경험이 자신의 진로를 당당하게 모색하는 데 중요한 지원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용은 기술적이잖아요. 더욱이 제가 밖으로 활동하지 않고 가게 안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 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미용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구체적 직업 목표 설정, P5)

다. 직업 준비기

직업 준비기는 진로 성숙을 통해 자기 자신의 진로를 선택한 후 직업을 갖기까지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직업 준비기에서는 적절한 채용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경우 대부분은 정보 수집 과정에서, 채용 조건상에서, 채용 과정상에서 배제를 경험하면서 희망 직업으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참여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 직업에 지원하고, 지원체계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배제 경험

참여자들 중 일부는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구인 조건을 보고 지원을 했지만, 장애 때문에 시켜보지도 않고 일이 힘들 것이라고 거절당하거나 장애인을 구인해서 지원했는데 남자만 뽑는다고 해서 지원조차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채용 조건상의 차별'로 추상화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들은 건물 자체에 편의시설이 없어서 구직을 포기하거나 자가 차량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업을 거절당하는 등의 물리적 접근의 어려움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물리적 접근이 보장되지 못함’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일부 참여자들은 면접에 참여한다고 해도 직종에 관한 결정적 정보 부족으로 면접에서 탈락하거나 창업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창업 기회를 놓치는 등 정보가 부족하여 구직에 실패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을 ‘구직과 관련된 핵심 정보 부족’으로 추상화하였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취업 결정 과정에서 학력과 직업 능력에 맞지 않는 업무를 제의 받거나 장애를 이유로 보조직을 의뢰 받는 등의 차별을 경험해서 이를 ‘보조적 직업 역할을 강요받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직업 준비기에 배제를 경험하면서 희망 직종의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는 경우, 여성장애인들은 학력과 자격조건을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통해 구직 의욕의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주어지는 직업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무력한 직업 생활을 유지하거나 심한 경우는 직업 생활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부정적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면접에 가면 나더러 그래요. “부부가 둘 다 장애인이면 나라에서 다 해줄 텐데 뭐하러 돈 벌려고 하나?”고요. 장애 수당으로 한 달에 4만 4천 원 받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나더러 왜 그렇게 맞벌이 하려고 하나고 또 물어봐요. (근로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음, P6)

취직하려는 곳은 집하고 멀었어요. 면접 보러 가니 곧장 차 있냐고 물었어요. 없다고 하니 면접도 그 질문으로 끝나고 결국 취업도 안 됐죠. 다른 데도 면접 보러 가면 “차 있어요?” 먼저 물어봐요. 난 일하고 싶은데... 나나 일에 대해선 안 묻고 차 있는 것만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원거리 통근을 위한 자가 차량 미비로 취업 거부, P6)

재택근무를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떨어졌죠. 전화 면접을 했는데, 매우 불쾌하게 면접 질문을 하였고, 거기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정보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직업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직종에 관한 결정적 정보의 부족으로 면접에서 탈락, P7)

어떤 사람이 나보다 좀 먼저 이력서를 냈고 나는 늦게 냈다고 하면서 먼저 낸 사람은 실장이라요. 그리고 나보고는 실장 보조를 하라고 하면서 참, 보조로 들어가겠느냐는 것부터 말했어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를 이유로 면접시 보조직 의뢰 받음, P6)

2) 적응 경험

독립 이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참여자의 경우는 전동휠체어를 무상으로 제공받게 되면서 사회 생활이 가능해져서 구직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 이를 '물리적 접근성의 확보'로 범주화하였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취업알선 기관에서 희망직종을 소개받아 대기업에 취업해서 지원 체계를 잘 활용한 경험을 드러내 이를 '지원체계의 적절한 활용으로 취업'으로 추상화하였다. 그리고 다른 참여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직종에 여러 번 도전한 끝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 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낮에 일해서 번 돈으로 밤에 미용기술을 배우는 등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 달성 위해 노력'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렇게 직업 준비기에 지원체계를 적절히 활용하고, 직업 목표에 대해 쉽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의 여성장애인 내부 속에 자기 효능감이 생겼음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 효능감은 직업 인식기와 직업 탐색기의 배제를 극복하면서 얻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 속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 2년 전 전동휠체어를 타면서 시작되었지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나올 수 없었는데 이제 혼자서도 다닐 수 있어요. (전동휠체어로 인해 사회로 나오기 시작함, P2)

저는 고용안정센터에 등록한 지 일주일 후쯤엔가 연락이 왔어요. 대기업이었고 제가 기술을 가진 직종이었어요. 그래서 취업이 되었죠.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희망 직종 소개 받아 취업, P6)

봉재회사에서 낮에 다니면서 야간에는 미용을 배웠어요. 회사에서 반대를 했죠. 미용을 배우면 나갈 게 뻔하니까. 미용을 못 배우게 해서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건 단지 내가 학원을 다니기 위한 경제적 뒷받침이었죠. (낮에 일해서 번 돈으로 밤에 미용기술 배움, P5)

라. 직업 적응기

직업 적응기는 직업 준비기를 통해 취업이나 자영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직업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과 직업 환경 상 만족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직업 적응기에 도달한 참여자들은 실제 직

업을 유지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직업 유지를 방해하는 요소로 드러냈으며, 그러한 어려움에도 직업 유지에 도움을 주는 강화 요소에 대한 경험을 드러냈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취업을 한 후 건강과 장애가 악화되어 결국 직업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경험을 드러내었다. 직업을 가지는 것 뿐만 아니라 직업을 유지하는 부분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직업 적응기에서 요구하는 역할, 지위, 보상 등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험도 드러났다.

1) 취업 유지의 방해 요소

참여자들 중 일부는 취업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로 했으나 계속 지연된 경험, 동일 노동을 수행하였으나 다른 직원과 다른 임금을 받는다든지, 장애로 인해 업무 배치상 제한이 되는 경험 등을 드러냈으며, 이러한 경험을 '불공평한 종사상 지위'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일부 참여자는 진로 탐색 및 선택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되면서 뒤늦게 희망 직종에 취업했으나 동료와의 나이차이로 인해서 동료관계가 어렵고, 동료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진다든지, 오히려 너무 당당한 참여자의 모습에 다른 동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등의 경험을 나타내, 이러한 경험을 '동료관계의 어려움'으로 범주화하였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월급이 적는데 교통비가 더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일은 마음에 들지만 수입 자체가 낮아서 생계 유지에 불안함을 느끼는 경험을 나타내어, 이러한 경험을 '낮은 수입'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참여자들 중 일부는 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서, 취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경험을 '물리적 접근성 미비'로 범주화하였다.

참여자들은 취업 유지의 방해 요소들로 인해 어렵게 취업한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러한 어려움을 개인적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5월에 입사할 때는 분명 8월에 정식직원으로 해주겠다고 하더니만. 그 때가 되도 안 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음, P6)

다른 동료들에게 비해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나이도 많고 장애도 있기 때문에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열심히 해요. (다른 동료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P7)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만족스러워요.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장애인을 도울 수 있다는 점도 좋구요. 그런데 생계 수단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힘이 들어요. (낮은 수입으로 생계가 불안함, P1)

급할 때나 출근시간에 택시 잡을 때 어려워요. 확 지나치고 가거나 비장애인만 태우고 가더라고요. 남들 30분 가는 거리면 저는 1시간 반 정도를 가야 되요. 출근시간 전에 일찍 나와요. 노이로제가 있어서 일찍 안 나오면 안 되요. 버스 안에서 코스 안내방송도 안 하는 차가 많아요. 지하철은 안내방송 잘 해줘서 정말 편한데 그건 좋은데 공짜이기도 하고. 대신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 P8)

2) 취업 유지의 강화 요소

참여자 중 일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였고, 아는 사람 밑에서 일한다든지 친구와 같은 직장에 취업해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인해 대인 관계 상의 어려움이 적은 것이 취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을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대인관계 상 스트레스 적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참여자들에게 대인 관계상의 어려움이 적다는 것이 강화 요소라는 점은, 참여자들의 취업 유지 시 그만큼 대인 관계 상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러한 부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직종에서의 직업 경험도 없었고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과거에 상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 일을 하면서 일을 통해 즐거움과 만족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 P7)

이제까지 판매직, 제과제조, 서빙, 생산직 쪽으로 취업한 경험이 있어요. 그 때마다 아는 분의 소개로 취업을 했었구요. 친한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아서 별 어려움은 없었어요. (친구와 동일한 직장에 취업해서 도움을 받음, P9)

3) 자영업 유지의 방해 요소

참여자 중 일부는 자영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취업이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자영업을 선택하였고, 창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결국 폐업한 경험을 드러내 이를 '창업 관련 정보수집 미비'로 범주화하였고, 또한 자영업을 창업한 이후에는 과도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로 힘에 부치는 경험을 드러내 이를 '노동 집약적인 작업환경'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자영업 유지의 방해요소는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자영업을 시도하거나 유지하려는 여성장애인들

에게는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며, 적절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미용일 하는데 내 몸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오십견이 왔어요. 팔이 뒤로 돌아가지도 않고...허리도 아프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보니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든 적이 많아요. 영업 시간은 보통 12시간 정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했어요. 새벽 1-2시까지 한 적도 있어요. 미용일이 육체적으로 더 힘들어요 미용실이라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쉬는 날도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과다한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가 높아 힘들, P5).

가장 쉬워보여서 한 거죠. 여기저기 막 생각하고 하니까 한참 체인점이 성행을 한 다음에 시작 한 것이 문제죠. 늦게 시작한 게 가장 큰 타격인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는 거 손님 기다리는데 지쳐서 전단을 가지고 나갔어요. 체질에 안맞더라구요. (취업이 안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자영업 선택함, P10)

4) 자영업 유지의 강화 요소

참여자 중 일부는 자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강화 요소로 높은 수입과 일을 통해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드러내서 이를 '자영업에 대한 만족감'으로 범주화하였고, 자녀 양육, 창업 정보 및 출퇴근 수단 등에 대한 노력을 통해 자영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은 요소들은 '적절한 지원체계 활용'으로 범주화하였다. 참여자들이 자영업 유지의 강화요소로 뽑은 것 중 창업 정보에 대한 상담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부 개인적인 관계망을 통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인 관계망이 없는 참여자들에게는 상대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른 직장은 생각 안 해봤지요. 직장 다녀서 70~80만 원 버는 것은 너무 적어요. 저는 하루에 150~200도 벌었거든요. 신부화장이랑 드레스하면 그렇게 벌 때도 있어요. 또 노래방도 오픈해서 직원을 두고 해도, 하루 40~50만 원 벌었거든요. (높은 수입으로 다른 직장에 취업할 생각은 하지 않음, P5)

장애인 단체에 참여하면서 창업 컨설팅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중소기업청에도 창업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인근 대학에도 창업컨설팅 센터가 있어요. 이번에 창업할 때는 창업지원센터 상담을 받아봤어요. 이런 것도 있었구나 싶었어요.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창업지원센터의 상담을 받아 사업장 이전 및 개조, P5)

5) 직업생활 포기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장애상태로 인해서 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드러냈다. 이는 '건강악화로 취업 유지 불가능'이라고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경험도 취업이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개인의 장애상태가 배려되지 않는 취업 경험이 이러한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취업을 여러번 시도해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몸에 무리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질병이 악화되어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구요. 저도 몸이 더 안 좋아지니까 계속 유지를 못하겠더라구요. (장애상태가 악화되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음, P11)

3. 여성장애인의 직업적 사회화 과정

여성장애인에게 현재 직업이 없다는 것은 다차원적인 의미라는 것을 분석 결과 발견할 수 있었다. 왜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온 경우, 가정과 학교에서 본인에게 맞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탐색할 기회가 없었던 경우, 그렇게 살다가 성인이 되어 막연히 취업을 시도하였다가 진입장벽에 부딪혀 좌절한 경우, 고용시장의 진입 장벽을 느끼고 임파워(empower)되어 다시금 본인에게 맞는 직업을 찾으려 노력하는 경우, 쉬운 채용 및 취업 유지 과정에서 좌절 경험이 쌓여 결국 직업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경우 등 직업의 부재에는 다양한 양상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성장애인의 직업 선택 및 유지 과정은 단순히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소년 후기와 성인 초기 이후의 과정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준비되어야 하는 일련의 연속 과정이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여성장애인이 직업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과정은 단순히 성인기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경험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연속적인 과정으로서 곧 직업적 사회화 과정인 것이다.

교육학에서도 사람이 사회적 자립과 경제적 자립을 획득하는 과정을 직업적 사회화(occupational socialization)라고 부르며 이러한 직업적 사회화는 특정한 시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흥미·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아동기에서부터 직업에 종사하게 되는 성인기를 거쳐 직업세계로부터 벗어나는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일

어나는 현상(강영배, 2005)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장애인의 직업 선택 및 유지 과정도 직업적 사회화 과정에서 분석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비장애인의 경우 가족과 학교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직업적 사회화 과정이 여성장애인에게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배려의 결과로 주어지는 지극히 개별적인 수혜이거나, 가족에서 그 과정 자체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극단적인 경험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및 사회 속에서는 진입자체가 거부되는 적극적인 배제와 진입만 허용할 뿐 실제적인 직업적 사회화 과정을 거칠 수 없게 만드는 소극적인 배제를 낳는다. 이러한 배제의 결과 여성장애인의 직업 현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여성장애인의 직업적 사회화 과정에서의 배제 경험

이렇듯 여성장애인의 직업적 사회화 과정은 비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비가시적이며 노동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통념 속에서 자연스럽게 직업적 사회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발달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배제되거나 제한된 기회 제공으로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직업적 사회화 과정상에서의 배제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부 여성장애인들은 직업적 사회화 과정 속에서 적절한 발달 과업을 달성하며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도 한다. 직업적 사회화 과정에서의 적응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직업 인식기에서는 직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직업 탐색기에서는 직업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직업 준비기에서는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 효능감이 증가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적응기에서는 직업에 만족하거나 적절한 지원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유지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것은 자연스럽게 연속적인 직업적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경험뿐만 아니라 배제 경험을 통해 현실에 직면하면서 다시 직업 인식기나 직업 탐색기로 되돌아가 적절한 진로를 탐색한 후 직업 적응기로 진행되는 경험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단계별 과업을 수행하는 적응 경험보다는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개인적·환경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배제 경험이 여성장애인들에게는 일반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여성장애인 직업적 사회화 과정에서의 배제 경험을 살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여성장애인의 직업적 사회화과정에서의 배제 및 적응 경험

구분	직업 인식기	직업 탐색기	직업 준비기	직업 적응기	
				취업	자영업
배제 경험	가정과 학교에서 직업 준비 부재	직업재활서비스와 정보접근에서 소외	진입 장벽 경험을 통해 구직의욕 좌절	동등한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함	노동집약적이거나 수입이 적음
적응 경험	직업의 필요성 인식	직업정체성의 형성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자기효능감이 증가	직업에 만족함	적절한 지원체계 활용

우선 직업 인식기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직업 탐색 기회 자체를 배제당하는 경험을 통해 직업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상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탐색기에서는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맞는 직종을 탐색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직업재활서비스와 정보 접근에서 소외당함으로써 적절한 진로를 개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Holland(1985)가 진로 성숙 유형 이론에서 제시한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는 내재적 변인(성격, 지능과 자아인식 수준 등)과 외재적 변인(직업 환경에 대한 서열체계, 개인과 직업에 대한 지식 등) 중에서 외재적 변인의 배제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직업 준비기에서도 물리적 접근의 어려움, 노동시장 내의 배제를 경험하면서 구직의욕의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직업 적응기에서도 취업을 한 여성장애인은 새롭게 형성된 역할과 동료관계를 형성하는데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배제를 경험하고, 자영업의 경우는 수입이 보장되는 경우 노동집약적이라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창업정보에 적절하게 접근하지 못함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폐업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제 경험으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의 직업적 사회화 과정은 연속적이기보다는 분절적이며, 단선적이기보다는 순환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기에서 아동기에 걸친 사회적 자아의 형성을 일차적 사회화라고 한다면, 직업적 사회화는 그 이후에 생기는 이차적 사회화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한 사회 환경에 참여하게 되는 직업적 자아의 형성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직업적 사회화 과정을 잘 경험한다면 자신의 희망 직종에 필요한 지식 또는 가치를 준비하여 긍정적으로 직업 세계에 진입하고 적응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적 사회화 과정에서 적절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 머무르며 직업을 포기하거나 적성, 학력, 자격조건을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수용하게 되어 적절한 진로 성숙과 직업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직업적 사회화 과정 내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희망 직종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형태나, 직업 자체를 포기하는 등 직업적 사회화 과정에서 고착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비취업 상태인 여성장애인도 직업적 사회화 과정의 특정 단계에 고착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비취업 여성장애인에 대해 무기력하고 일하기 싫어한다는 사회적 편견으로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여성장애인이 지금의 직업 세계에서 무기력한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분석한다면 비취업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원인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파악을 통해 각각의 상황에서 직업 세계의 무기력함을 제거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직업 인식기에서 고착된 여성장애인은 직업의 필요성과 직업탐색 기회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도 못하게 된다. 이는 학교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불평등한 사회계층에 기인하며 이는 성인이 된 후의 직업 활동에까지 차등적인 결과를 초래한다(Williams, 1974; 장화경, 1985에서 재인용)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에게는 직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여성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 능력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직업 탐색기에서 고착된 여성장애인은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을 방문하지만 적성이나 능력과 상관없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경험한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직업을 수용하거나, 이마저도 용이하지 않은 중증 여성장애인은 직업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게 된다.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는 여성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역할 모델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중매체나 사회 속에서 여성장애인은 직업의 주체이기보다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내면화하게 되기 때문이다. 적절한 역할 모델을 제시해 주고,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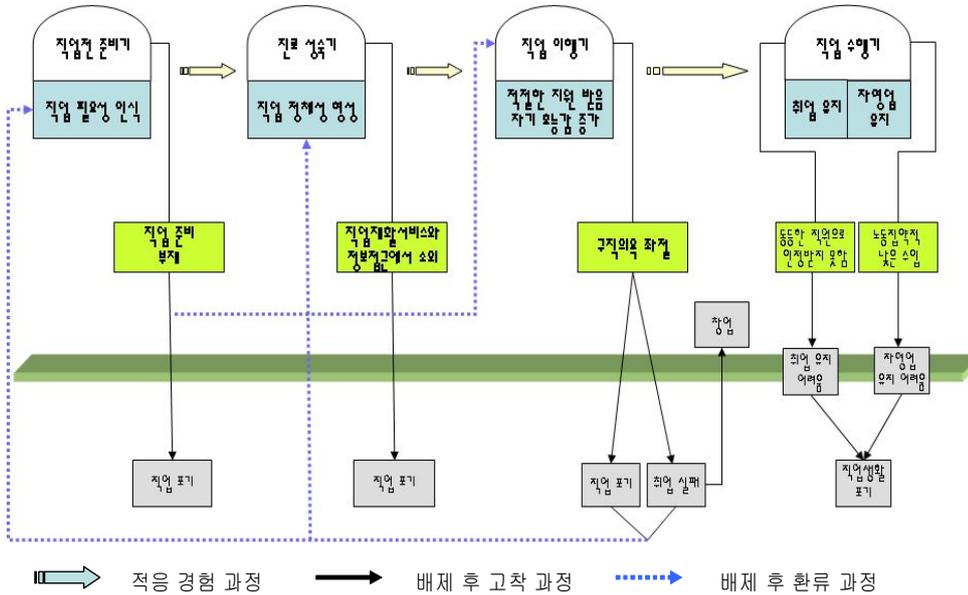
셋째, 직업 준비기에서 고착된 여성장애인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제적인 진입 장벽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진입장벽으로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채용 조건 상의 차별도 있고, 물리적 접근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 환경 요소 등도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여성장애인들은 학력과 자격 조건을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을 수용하거나, 구직의지가 좌절되어 직업을 포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노동시장에서 학력과 자격을 인

정받지 못한 경험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에 대한 부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노동시장과 사회 환경적인 차별을 해소할 사회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직업 적응기에서 고착된 여성장애인은 어렵게 직업생활을 시작했으나 새로운 직업 지위, 역할, 그리고 인간관계에 적응하지 못해서 직업생활을 포기하거나, 직업을 전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고착은 여성장애인은 장기적으로 일하지 못한다든지, 일에 대한 의욕이 적다는 등의 또 다른 편견을 야기하기도 해서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제까지 일반적인 직업재활서비스는 직업 준비기에 집중되어 있어 장애인이 취업을 한 이후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장화경(1984)에 따르면, 직업적 사회화는 취업 후 새로운 직업적 지위에 따른 역할행동을 공식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직업적 사회화는 취업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 생활에 접어들어서는 적응과 자기 역할 수립을 돕는 것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도울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상에서 직업적 사회화 과정에서의 고착 경험을 각 단계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여성장애인에게 직업적 사회화 과정은 연속적이기보다는 분절적이며, 단선적이기보다는 순환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예를 들어 직업 인식기에서 고착되는 경우는 직업준비 부재로 인해 직업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직업 세계로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적성과 능력에 맞지 않는 단순 직종에 취업하여 수동적인 태도로 직업을 유지하는 경험이 드러났다. 또는 직업 준비기에서 실제적인 노동시장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서 다시 직업 인식기로 돌아가서 직업의 필요성 및 희망 직종에 대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 다시 직업 탐색기를 통해 적절한 진로를 탐색하면서 적절한 직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직업을 가진 이후 새로운 직업 세계에서 의 지위와 역할에 따른 적절한 인간관계와 행동을 습득하지 못해 직업 적응기에서 직업 유지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림 1] 여성장애인의 직업선택 및 유지 과정



V. 결론 및 제언

여성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직업적 사회화 과정은 직업 인식기, 직업 탐색기, 직업 준비기, 직업 적응기로 분석되었다. 각 과정의 배제와 적응 경험에 대해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각 과정상에서 고착된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경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현실적인 직업상태는 직업 인식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산물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가족, 학교, 사회라는 사회화의 장(arena)에서 경험하고 기대 받은 결과가 현실의 여성장애인의 직업 상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적 사회화 과정에서 가족, 학교, 사회 속에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배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직업 인식기의 여성장애인에게는 직업 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가족과 학교에서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가족과 학교에서 여성장애인을 직업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한, 여성장애인의 직업적 사회화는 출발선상에서부터 비장애인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족과 학교에서 여성장애인을 직업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직업적 사회화 방법을 개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적절한 직업적 사회화 방법 중의 하나가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아동기의 직업적 사회화는 훗날 직업을 선택할 때 기여하는 직업 관련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Kohn, 1981; Kohn & Schooler, 1973, 1982; Mortimer & Lorence, 1979)고 밝히고 있다. 여성장애인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인식할 수 있다면, 그들이 직업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인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여성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정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직업 탐색기의 여성장애인에게는 진로 탐색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 내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하다고 규정되는 직종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적절한 진로를 탐색하는 데 장애로 인해 제한되지 않고 자기의 진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교육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장애 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교원 양성 및 보수 교육 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사회적 차원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의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진로 성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장애 특성에 부합되는 진로 탐색 도구 개발, 성공적으로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장애인과 멘토 연결 등과 같은 적절한 진로 탐색을 도울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직업 준비기의 여성장애인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접근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직업능력개발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장벽의 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관과 노동시장의 적극적인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하며, 노동시장 접근 상의 직접 및 간접 차별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넷째, 직업 적응기의 여성장애인을 위해서는 새로운 직업 세계로 진입 한 이후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더욱이 직업 세계의

동료관계나 상하관계에서 적절한 역할 행동에 대한 사회화가 부족하여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불평등한 종사상의 지위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직업 세계에서 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을 가진 여성장애인을 통해 그들간에 적절한 동료상담 및 멘토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네트워크를 개발해 주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불평등한 종사상의 지위로 인해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 서비스 등과 같은 공식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위에서 제시한 제언들이 구체적으로 실천 현장과 정책에 적용된다면, 여성장애인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성장애인을 적절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동욱(2003). 「장애인 취업 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2003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21~241쪽.
- 강영배(2005).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직업의식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기태·박병현·강철희·이성규·이경희(1999). 「여성장애인 취업 욕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37권, 33~63쪽.
- 나운환·류정진·김동주(2003).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고용차별실태 연구」, 『직업재활 연구』, 제13권 제1호, 4~25쪽.
- 나운환·박경순·강윤주(2004). 「청각·언어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차별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제13권 제1호, 183~206쪽.
- 나운환·정명현(2004). 「장애인의 실업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6호, 267~285쪽.
- 남궁정(2004). 「청소년을 위한 진로 성숙도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제17권 제2호, 73~88쪽.
- 박석돈·김선주(2003). 「신장장애인 취업실태 및 직업 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제41권, 179~200쪽.
- 서울시실업대책위원회(2000). 『장애여성의 실업경로 분석 및 대안 모색』.
- 유동철(2000a).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취업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42권, 290~313쪽.
- _____ (2000b). 「여성지체장애인에 대한 이중차별 분석: 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15권, 73~105쪽.
- _____ (2002). 「장애인 실업의 원인: 생산성 또는 차별?」, 『한국사회복지학』, 제48권, 333~358쪽.
- _____ (2003). 「장애인 고용의 간접차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취학연기로 인한 연령제한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22권, 139~159쪽.

- 유태균 역(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Deborah K. Padgett(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 Challenge and Rewards*, 서울: 나남출판.
- 이계준(2001). 「정신장애인 구직자의 특성 및 취업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11권 제2호, 215~235쪽.
- 이선우(1997).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 프로빗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33권, 287~313쪽.
- 이성규(2001). 「장애인의 취업욕구와 직업재활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11권 제2호, 109~138쪽.
- 장화경(1984). 「취업여성의 직업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2005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7). 『여성장애인 취업실태 및 고용기회 확대 방안』.
- 한국여성장애인연합(2003). 『여성장애인 고용실태에 관한 연구』.
- Anderson, P.(1999). “Open Employment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ustralia”,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13, pp. 79~94.
- Cheryl, A.(1999). “Women with Disabilities Making the Transition Back to Work: Psychosocial Barriers and Interventions”, *Work*, Vol.13, pp. 67~71.
- Fulton, S. & Sabornie, J.(1994). “Female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28 No.2, pp. 149~165.
- Holland, L.(1985).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2nd ed., Prentice-Hall.
- Kohn, L.(1981). “Personality , Occupation, and Social Stratification: A Frame of Reference”, Treinman, D. & Robinson, R.(eds.),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New York: JAI Press, pp. 267~297.
- Kohn, L. & Schooler, C.(1973). “Occupational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An Assessment of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8, pp. 97~118.
- _____ (1982). “Job Conditions and Personality: A Longitudinal Assessment of Reciprocal Effec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87, pp. 1257~1286.

Morgan, L.(1988). *Focus Group an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Mortimer,T., & Lorence J.(1979). “Work Experience and Occupational Value Socialization: A Longitudinal Stud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84, pp. 1361~1385.

Shelley, A. & Glenys, C.(2003). “Psychosocial Themes in Durable Employment Transitions”, *Work*, Vol.20, pp. 185~197.

Strauss. A., & Corbin J.(2001).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 Grounded Theory Procedure and Techniques*, Sage publications.

Westmorland, R., Williams, S. & Arnold, E.(2002). “Perspectives on Work (re-entr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mplications for Clinicians” *Work*, Vol.18, pp. 29~40.

Williams, W.(1974) 職業選擇の理論, 吉田弘(譯), 東京: 誠信 書房(1983).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Job Selection and Maintenance Process by Women with Disability

Jee Young Kwak

Jeong Ah Cho

This study explores the experience of women with disability in choosing and maintaining their jobs. It is the aim of study to find social welfare implications based on the pragmatic understanding of their experience. This research uses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and focus-group interviews. Participants are 16 women with disability, who have experiences in finding and maintaining employment. Collected data are analysed using Strauss and Corbin's (2001) method of asking questions and constant compariso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whole process of job selection and maintenance experienced by women with disability can be divided into 4 stages and these stages experienced by women with disability are not simply limited to adulthood. It is not a temporary or fragmentary process but one that continues throughout life and is identified as "an experience of exclusion and adaption during occupational socialization of women with disability". Noticeably, this study finds that the exclusion experience by women with disability has resulted in fragmentary and recurring occupational socialization. Furthermore, the job status of women with disability is not attributed to the lack of job rehabilitation training or service during adulthood but is the outcome of interaction between various elements starting from the early job preparation period.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basis of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disabled women's job choice and maintenanc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ways to minimize the exclusion on disabled women in the arena of occupational socialization - family, school and

society. Those approaches can have implications in carrying out social welfare practices.

Keyword: Occupational socialization, Job choice, Job maintenance, Exclusion experience, Qualitative study